

日本 字音語에 관련된 用語에 관한 考察

李京珪*

[ABSTRACT]

There are some confusions with terminologies referring to borrowing words from Chinese in the Japanese language study. The words like Kango, Jiongo, kanjigo are the cases in point. These words each have different usages. Then, these usage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r. First, because Jiongo(kango) is contrasted with Wago and Gairaigo, from of words should be the criteria for use of the word(Jiongo or Kango). Namely, whether a word was made out of borrowing pronunciation of Chinese should be the criteria for use of the word(Jiongo or Kango). Second, Kanjigo refers to the word that marks the Japanese by means of Chinese character.

While Jiongo is based on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Kanjigo is based on Chinese character. The former borrows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the latter does the character of Chinese. Therefore, Kanjigo can belong to Jiongo(Kango), Wago or Gairaigo. That is to say, Jiongo(Kango) is a matter of the types of words, while Kanjigo is a matter of making the character.

키워드 : 漢語, 字音語, 漢字語, 漢字表記語, 日本漢字音, 語形, 語種

1. 들어가기

일본어학의 연구에 있어서 용어 사용의 적합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漢語」 「字音語」 「漢字語」 등의 용어 사용이 바로 그러한 경우의 한 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의 많은 경우가, 이들 용어간의 차이점에 관하여 별다른 인식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 사용의 차이에 따라 그 연구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들 용어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들 용어에 대한 필자 나름의 試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字音語(漢語)」에 관하여

일본어의 「字音語(漢語)」에 대한 定義를 검토해 보면, 中国 起源에 초점을 두고 있는 說과 漢字音을 기준으로 하는 說로 크게 兩分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漢語」의 定義에 관해 다루고 있는 辭典類의 記述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① 『国語学辞典』¹⁾

国語の中に用いられる中国起源の語で、主として呉音・漢音を唱えらるるものをさす。元來漢語というのは中国で外国の語に対して自国の語をさして言ったのである。(山田孝雄執筆)

② 『日本文学大辞典』²⁾

漢語は古くは広く支那語を意味したが、今は漢字音(字音)より成る単語をいふ。(橋本進吉執筆)

이 가운데 ①은 1940년에 간행된 山田孝雄의 『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³⁾의 내용을 축약했다고 볼 수 있는 기술 내용이다. ②는 山田의 単行本이 간행된 이후, 字音語의 定義에 관한 최초의 기술이다. ①의 견해에 따르면, 字音語 研究의 기준이 中国語의 語法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①의 견해를 따르다 보면, 日本語 研究에 中国語 研究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왜냐하면 日本語 研究라는 전제하에서는 일본어로서의 연구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字音語의 定義를 中国로부터 전해진 語에 국한한다면, 中国語 起源 이외의 日本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語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山田에 따르면,

漢語は厳密にいえば支那に行われたものが本邦に伝わった語に言うべきである道理だけれど、本邦において、漢字を利用して漢語の形に似せて作ったものが少なくない。それも今は広く漢語の部類として取り扱うべきであろうが、それらのものは近世に至っておびただしく生じている。(国語学辞典, p.199, 2~3段)

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中国 伝來의 語라는 문제 이외에도 「漢語の形に似せて作ったもの」란 漢字表記語에 해당하는 것인지, 字音語인지 그 定義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위의 定義가 日本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字音語를 의미한다 해도, 그 字音語의 기준이 되는 語形(読み)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하여 ②는 字音語를 일본어의 일부로서 취급하려 한 견해로, ①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古くは支那語を意味した」라는 언급은 山田 學說의 수정을 의미하며, 「漢字音より成る単語」라고 하는 것 또한 山田 學說의 결함을 보완한 것이라 평가된다. 字音語 研究라는 시점하에서 보아 ①이 中国 起源에 초점을 맞춘 견해임에 대하여, ②는 일본어에서의 語形—字音語形—을 중심으로 한 견해라는 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검토한 學說 이후에, 다음과 같은 字音語의 定義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보인다.

③ 『国語学研究事典』⁴⁾

国語の中に用いられる中国起源の語を主としてさし、和語に対していう。中国からの借用語のほか、漢字一字、または二字以上から成る字音語をもさす。その中に、わが国で造った漢語や、梵語

1) 国語学会編(1966) 『国語学辞典』 東京堂書店 p.198

2) 藤村作編(1950) 『日本文学大辞典(第2巻)』 新潮社. p.104

3) 山田孝雄(1940) 『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 宝文館. pp.1~44

4) 佐藤喜代治(1980) 『国語学研究事典』 明治書院. p.95

を漢字で音訳したものをも含む。(遠藤好英執筆)

이 ③의 기술에 따르면, 「漢語」를 「和語」에 대립하는 語라고 한 점과 「字音語」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어를 포함시킨 점 등이 새로운 견해이다. 또한, 중국으로 부터의 「借用語」란 吳音·漢音 등의 語形에 한정하고, 「字音語」에는 日本製 字音語와 산스크리트어 등의 음역어를 포함한다는 기술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어 연구에 있어서는 차용어인지 아닌지의 연구보다도, 오히려 일본어로서의 용법이나 특질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日本 字音語를 借用語의 관점에서 본다면, 出自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遠藤의 「借用語」라는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④ 『国語学大辞典』⁵⁾

中国で外国語に対し、自国語のことをこう(漢語:筆者注)呼んだが、日本では、狭義には中国起源の語で主として吳音・漢音で唱えるものを指し、広義には「和語」「外来語」に対して字音語をこう呼んでいる。(森岡健二執筆)

④에서는 日本 字音語의 범위를 廣의· 협의의 두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한 점이 독특하다. 협의로는 앞에서 언급한 山田의 설을 상정한 것일 것이다. 廣의로는 일본 고유어(和語)와 외래어에 대립되는 語로 설정하고 있다.

⑤ 『国史大辞典』⁶⁾

字音語ともいう。漢字音によって表わされた語。普通は日本語の中で用いられるものを指し、それは日本漢字音にもとづいたもので、多く吳音・漢音によるものをさすが、時には唐音のものを指すこともある。(築島裕執筆)

위의 설에 따르면, 「字音語」와 「漢語」는 동의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전제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漢語」는 「字音語」보다 협의이며, 中国 出自라고 하는 어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음으로 이루어진 語라는 廣의의 「字音語」를 설정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정의에 비해 중국어와의 관계를 가능한 한 나타내지 않으려 한 점, 다시 말하면 일본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한 특색이 돋보이는 정의이다.

①에서 ⑤까지의 기술 내용을 정리하면, ③④가 ①의 관점을 고려한 견해라고 말할 수 있으며, ②의 학설이 ③④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각각의 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②의 橋本進吉의 說 이후, 日本 字音語의 研究는 字音語가 日本語로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밝히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둘째, 日本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字音語, 그리고 音訳語(梵語)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日本 漢字音의 範圍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5) 国語学会編(1980) 『国語学大辞典』 東京堂書店. p.184

6)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編(1983) 『国史大辞典(第3巻)』 吉川弘文館 p.805

日本 字音語의 定義와 關係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日本 漢字音의 範圍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日本 漢字音에 關係해서는 일찍이 로드리게스(Rodriguez)의 指摘이 있다.

⑥ 『日本大文典』⁷⁾

支那にあった三つの時代、即ち「漢の代(Canno yo)」「呉の代(Gono yo)」「唐の代(Tōno yo)」に漢字が夫々ちがった音又名称、「こゑ」(字音のこと:筆者注)を持ってゐたのによつて、日本で使はれる漢字には三つの「こゑ」があり得るといふ事である。(中略)これらの字音を名付ける基となつた時代といふのは「呉・漢・唐」であつて、この三つで、その時代に行はれた「こゑ」を呼ぶのである。即ち、「呉音」は呉国の声であり、「漢音」は漢の声であり、「唐音」は唐の声である。如何なる種類の文章であっても、その中の「こゑ」はすべてこれら三種の中のどれかによつて読まれる。

또한, 飛田良文는

⑦ 「漢語の読みと同音語」⁸⁾

漢語という用語は、和語と対になつて使われ、「中国に起源をもつ語」と考えられているが、これには問題がある。この定義に従うと、日本人が工夫して作つた「大根」「出張」「物騒」などの和製漢語が除かれてしまう。そこで私(飛田:筆者注)は、「字音によつて読む語」と定義したいと思う。この場合は字音の定義によつて多少範囲が変わるが、現代中国起源の語が除かれる。そして字音の範囲は、呉音・漢音・唐宋音といわれる、日本人が日本人に使用し理解する範囲の漢字音と考えたい。

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의 飛田가 말하는 「日本人に使用し理解する範囲」라는 문구에 따르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別(べつ)」「万(まん)」 등의 다수의 慣用音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語에 있어서의 慣用音은 기본적으로 吳音·漢音이 변형된 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日本 漢字音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필자의 견해는 飛田說의 「日本人に使用し理解する範囲の漢字音」이라는 表現을 「日本語の文中で理解可能な範囲の漢字音」이라고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토대로 필자는 日本 字音語에 關係해서는 「吳音·漢音·唐宋音·慣用音 등、日本語 문장 안에서 이해 가능한 漢字音으로 이루어진 語」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柏谷嘉弘 등은 日本 漢字音에 현대 중국 한자음까지도 포함시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⑧ 「日本漢語」⁹⁾

「烏龍ウーロン·公司コンス·先生シーサン·面子メンツ」などが現代語の語であるが、橋本進吉·荒川惣吉衛が漢語(日本漢語)と認める。音声で聞く時はさして違和感はないが、漢字を見ると奇異に感じるので、他の学者からは除外されるのであろう。しかし、音韻面ではシナ語の特性を具有してゐるので、日本漢語の範囲に入る。

7) ジョアン・ロドリゲス 著・土井忠生訳(1955) 『日本大文典』三省堂. p.665

8) 飛田良文(1978) 『漢語の読みと同音語』『和語漢語』文化庁, 大蔵省印刷局 p.48

9) 柏谷嘉弘(1978) 「日本漢語」『東京大学国語研究室創設百周年記念国語研究論集』汲古書院 p.434

필자의 견해에서는 앞에서 말한 日本 字音語의 정의에 입각하여, 현대 중국 한자음은 日本 漢字音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漢語」라는 용어는 중국어라는 原義보다는 「和語」「外来語」에 대립되는 용어 사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중국 기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자음을 기초로 하는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字音語」라고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3. 山田의 字音語(漢語) 범위 설정의 문제점

日本 字音語(漢語)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山田孝雄의 저서 『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¹⁰⁾(이하, 「漢語の研究」라고 칭한다.)를 들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의 字音語(漢語) 범위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저서에서는 日本 字音語(漢語)의 특색, 그리고 일본어로의 수용 양상 및 영향 등을 개괄한 연구서로서, 일본어에 있어서의 字音語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에게 日本 字音語 연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山田의 字音語(漢語) 연구는 중국에 있어서의 源流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 실제 일본어로서의 字音語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언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山田孝雄는 그의 저서 「漢語の研究」의 제3장 「本来の漢語と認むべきものの範囲」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漢語はもとより支那の語たること明らかなれば、支那語即ち漢語といひて可なりやといふ問題起こる。(漢語の研究, p.38)

위의 기술 내용에 따르면, 山田가 말하는 字音語(漢語)의 개념은 우선 중국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국어에 있어서의 용법을 중시하는 연구시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의 언급에서는 위의 정의에 어긋나는 語에 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 예를 인용해 보면,

わが国にて今漢語といへるものは昔より存する名称にしても支那語の意義たりしものなるは疑なしといへども、今日の支那語は現に漢語とは名付けられざるのみならず、実際われらの漢語とさすものと今日の支那語とは全く同一のものにあらず。即ち今日に於いては漢語と支那語とはその意義の上に差異あるものなり。(漢語の研究, p.38~39)

라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 내용을 보면, 결국 중국어임에도 불구하고 近・現代의 중국 전래의 語(餃子・焼売・麻雀 따위)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これ(漢語:筆者注)は古代の支那本部の語をさせるものといふべきならむ。而して吾人の研究すべき

10) 前掲(注3) 参照

所はそのうちわが国語に入りしもの及び、わが国語に影響を与えしものなるべきことはいふもまた
ず。(漢語の研究, p.40)

라는 기술이 보인다. 위의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山田는 字音語를 중국어의 일부로
서 취급하고 있으며, 그러한 중국어의 일부가 일본어에 전래되어 일본 자음어로서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山田는 일본 자음어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언
급을 하고 있다.

こゝにたとえば、蘇枋・葡萄・牡丹・密陀僧の如く一見漢語と認めらるゝが如くにして実は古代の
支那における外来語にして、その当時支那にしてこれを音訳したるものたるなり。これらは如何に
取扱ふべきかといふに、それらの本国語の転々としてわが国に入れるものといふべきものにして嚴
密にいへば、漢語として取扱ふは理に合せざるものなり。されど、それらは古代に漢語として取扱
はれ入り来れるものなるべく、又數に於いて多からざるを以て姑く漢語の研究に於いて附載の意に
て取扱ふことをすべし。(漢語の研究, p.42)

이는 중국어에 있어서의 고대의 외래어를 일본 자음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견해인 것이
다. 이들 외래어는 이른바 음역어를 말하는데, 山田는 그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자음어 연구의
부수적인 연구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次は又仏教上の語として梵語その他の語を支那にて音訳又は義訳したるもの多くして、それがわが
国に入れるもの甚だ多し。その音訳のものとは、仏陀・仏・ホトケ・袈裟・率都婆・塔婆・塔・醍
醐・和尚・檀那・鉢の如きものにして仏、菩薩、天部、夜叉等の名に多し。これらは上の蘇枋・葡
萄等に準ずれば、漢語の研究において附載の意にて取扱ふこと必ずしも不可にあらざる如しいへど
も、其の數比較的に多ければ(言海に梵語120とあげしものこれなり)今はこれを別にすべし。(漢語
の研究, p.42~43)

라는 기술을 보면, 「仏陀・袈裟・卒都婆・塔婆・塔・和尚・檀那」 등의 고대 중국에서 음역
된 산스크리트어를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山田의 견해가 字音語(漢語)를 중국어라고 보
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山田의 日本 字音語에 관한 기준은, 그 연구 대상이나 범위가 字音語(漢語)의 정
의에 어긋나는 모순을 가져오고 있으며, 春日政治의 지적¹¹⁾은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언급이기
도 하다.

중국어에 있어서의 외래어나 산스크리트어 등의 음역어는, 그것을 차용한 일본어의 입
장에서 보면, 字音語(漢語)와 동류이기 때문에 일반 자음어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이들 외래어나 음역어가 중국어 경유라 할지라도, 漢字音에 기초한 것
이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받아들인 일반 자음어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필자는 일본어 문장 안에서 이해가능한 한자음에 의해 이루어진 語를 일본 자음어라고

11) 春日政治(1940) 「山田孝雄博士著『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を読む」(『国語と国文学』第7
卷第9号). 春日는 山田의 저서에 대해 「第三章 本来の漢語と認むべきものの範圍は漢語といふもの
の限定であつて、こゝに取り扱ふべき音語・漢音語・唐音語及び古音語の例をあげ、仏教 其他による
支那に於ける外来語であつて、音訳された語は之を除外するといふ。私かに思ふにこの音訳語もすべて支那
を経て来て而も漢語形を取つてゐるものであるから、之を除外せずに準漢語とすることも一つの見方
であろうが、博士はその点を厳として區別された。但し後方にはこの音訳語を漢語の例として出された所
も見えるやうである」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기 때문이다. 일본 자음어의 인정에 있어서 중국어 기원 유무가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자음어 연구는 중국어의 시점이 아닌, 일본어라는 전제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4. 「漢字語」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漢語」「字音語」라는 용어에 대하여 「漢字語」라는 용어의 쓰임이 있다. 「漢字語」에 관해서는 『漢字百科大事典』의 「漢字表記語(漢字語)」의項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⑨ 『漢字百科大事典』¹²⁾

広い意味では漢字で表記されている語を言うが、研究者の間でもこの用語の概念については未だ共通理解が十分にはできておらず、述語として用いるときは定義が必要である。(荒尾楨樹執筆)

荒尾가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漢字語」란 문자 그대로 漢字로 표기되어 있는 語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漢語」「和語」「外来語」등의 語種과는 상관이 없는 문자 표기로서의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荒尾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공통된 인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漢字語」와 관련된 몇몇 견해를 살펴 보고자 한다.

⑩ 「読本における漢字語の傍訓」¹³⁾

ここでいう漢字語というのは、概念をともなった語としての漢語と訓に対する表記としての漢字の両方を含む意味で用いる。(鈴木丹次郎)

⑪ 『国語と辞書』¹⁴⁾

何と読むべきか確定できない漢字の熟語、時代によって、場合によって、読み方をさまざまに変えるけれども、見える文字連結としては、一定の文字列としての漢語を、むしろ音声言語風に還元して扱うことをやめて、全くの書記言語として、つまりは文字言語として扱う手を考えることである。つまりそれは、由来からすると、中国語であろう。しかも日本人もつくり出す、えせ漢語もあろうから、すべて一括して扱うために、「漢字語」という枠を設定して、そこで一括して取扱う。(山田俊雄)

⑩에서는 개념어로서의 「漢語」와 「漢字」를 일괄해서 「漢字語」라고命名하고 있다. 이는 語種에 따른命名 기준과 표기상의 문제를 일괄해서 취급하게 되므로, 어휘상의 개념과 문자표기상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⑪에서는 漢字音を 토대로 하는 「漢語」라는 용어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文字言語의 관점에서의 「漢字語」라는 용어를 설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漢字語」라는 용어 설정을 통해서 「漢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漢字音과 관련된

12) 前田富祺外(1996) 『漢字百科大事典』 明治書院. p.211

13) 鈴木丹次郎(1968) 「読本における漢字語の傍訓」 『近代語研究(2)』 武蔵野書院 p.460

14) 山田俊雄(1978) 『国語と辞書』 中央公論社. p.22

된 문제와 문자표기의 문제와는 그 기준 부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⑫ 「述語, 〈漢字語〉を提唱する」¹⁵⁾

そこでわたしは上であげた「踊子・観箱・手紙」など原則として漢字でなくては書かない日本語や
いわゆる宛字を「漢語」(中国語)とは区別して、「漢字語」とよびたいと思います。これには訓読
の語が多いのですが、必ずしもそれには限るわけではなく、語音の種類には左右されません。本質
的にいえば、日本の漢字はすべて漢字語ということが出来ます。(杉本つとむ)

杉本가 말하는 「漢字語」의 용어 설정은 일본어의 「和語」의 한자 표기 및 소위 「宛
字」 문제의 처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중국 전래의 「漢語」
이외에는 모두 「漢字語」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日本製 「字音語」 등은 모두 「漢字語」
에 포함되는 결과가 된다. 결국에는 漢字音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자 표기만을 중
심으로 본 견해이므로, 소위 「字音語」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를 토대로 字音語(漢語)와 漢字語(漢字表記語)의 용어 사용은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字音語	和語	外来語	
漢字表記	韓国	葉書	倶楽部	→ 漢字語(漢字表記語)
仮名表記	かんこく	はがき	クラブ	
英字表記	kankoku	hagaki	kurabu	

위의 표에서 「韓国」의 경우, 「韓国」「かんこく」「kankoku」 등 어느 경우의 표기라
도 日本 字音語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들은 漢字音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기 漢字表
記・仮名表記・英字表記 등의 표기를 달리 했을 뿐이다.

또한 「葉書」「倶楽部」의 경우는 漢字表記를 했다 할지라도 그 한자에 상응하는 漢字音
에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 고유어와 외래어의 漢字表記에 지나지 않으며, 語種上으
로는 字音語에 대립되는 和語・外来語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
「コーヒー」의 표기로 「珈琲」「哥非乙」「哥喜」「茄菲」「骨喜」 등이 있는데, 이는 표
기상으로는 한자표기라 할지라도 외래어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韓国」와 같이 漢字音에 토대를 두고 있는語는 어떠한 표기를 취하
고 있다 하더라도 語種上으로는 字音語인 것이다. 이에 반해, 한자표기를 했다 할지라도
「葉書」「倶楽部」의 경우는 각기 和語・外来語이며, 문자 표기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
「韓国」와 더불어 漢字語(漢字表記語)라는 용어 사용이 적합하다 하겠다. 즉, 字音語와 漢
字語라는 용어 사이에는 각기 語種上의 문제와 表記上의 문제로 그 기준 부터가 다름을 확
인할 수 있는 것이다.

5. 맺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日本 字音語에 관련된 몇몇 용어를 검토해 보고, 그 문제점과 필자 나
름의 견해를 한다. 日本 字音語에 관련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아직 각 연구자들간의 공통된

15) 杉本つとむ(1997) 「述語, 〈漢字語〉を提唱する」 『解釈(第44卷)』 解釈学会. p.4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용어의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語種을 기준으로 하는 「字音語(漢語)」는 「和語」「外来語」에 대립되는 용어 사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語形(読み)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자 표기상의 기준에서는 漢字 表記와 仮名 表記 등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漢字語」는 바로 前者에 해당하는 語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字音語」라는 용어 사용은 漢字音에 기초하는 문제이며, 표기의 문제와는 그 기준 부더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漢字語」는 漢字 表記를 전제로 하는 용어이므로, 그 것이 「字音語(漢語)」「和語」「外来語」중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요약컨데, 「字音語」는 語彙의 語種上의 문제이며, 「漢字語」는 文字 表記上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본어 연구에 있어서의 「字音語」는 「漢字音을 기초로 하는 語形の 語」이며, 「漢字語」는 「漢字로 표기된 語」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용어와 관련된 필자의 견해는 아직 試論에 불과하며, 남은 문제들에 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参考文献]

- 柏谷嘉弘(1998) 「日本漢語」 『東京大学国語研究室創設百周年記念 国語研究論集』 汲古書院 pp.428-449
杉本つとむ(1997) 「述語, <漢字語を提唱する>」 『解釈(第44卷)』 解釈学会. pp.3-9
鈴木丹次郎(1968) 「読本における漢字語の傍訓」 『近代語研究(2)』 武蔵野書院 pp.457-472
飛田良文(1978) 「漢語の読みと同音語」 『和語漢語』 文化庁, 大蔵省印刷局. pp.48-60
山田俊雄(1978) 『国語と辞書』 中央公論社. pp.4-25
山田孝雄(1940) 『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 宝文館. pp.1-44
春日政治(1940) 「山田孝雄博士著『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を読む」 『国語と国文学』 第7卷 第9号
国語学会編(1955) 『国語学辞典』 東京堂書店. pp.198-200
藤村作編(1950) 『日本文学大辞典(第二卷)』 新潮社. p.104
佐藤喜代治編(1977) 『国語学研究事典』 明治書院. pp.95-97
国語学会編(1980) 『国語学大辞典』 東京堂書店. pp.184-187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1983) 『国史大辞典(第三卷)』 吉川弘文館. p.805
ジョアン・ロドリゲス著, 土井忠生訳(1955) 『日本大文典』 三省堂. pp.665-677

투 고 : 2002. 8. 31

2차심사: 2002. 9. 12

3차심사: 2002. 10. 5

住所：614-174 釜山広域市 釜山鎮区 伽倻洞 24 番地 東義大学校 日語日文学科
電話：051)897-5120(自宅) 051)890-1264(研究室) 011-9032-5120(H.P)
E-mail：lk5120@dongeui.ac.kr

K C I